
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

2024. 2. 13.



관세청

순 서

I. 추진성과 및 평가	1
II.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III. 2024년 핵심 추진과제	5
1.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	5
2. 경제안보·공정무역질서 확립	7
3.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	8
4. 국민·납세자 편의 제고	9
5.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	10
6.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가속화	11

I. 추진성과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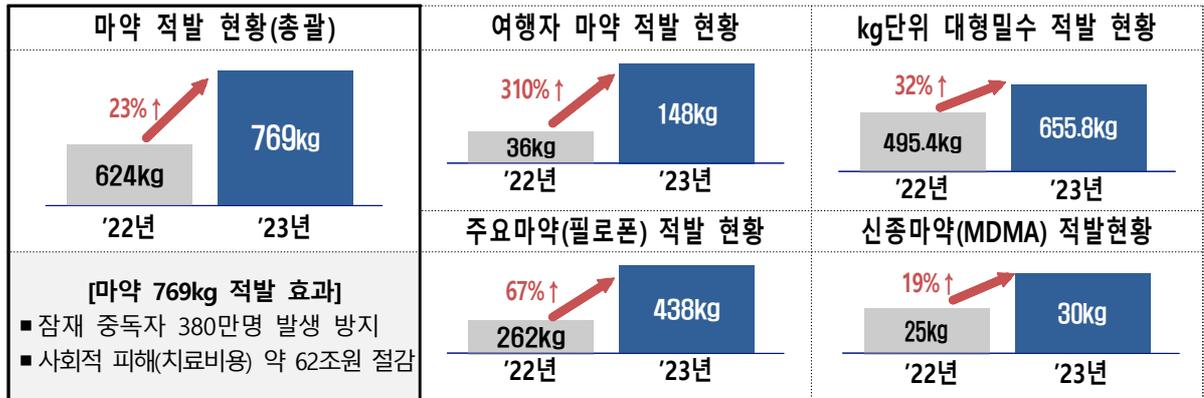
① [외부평가] 마약 반입 차단, 국민편의제고, 디지털정부 선도

언론 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난 해 적발한 마약 무게만 769kg...전년보다 23% 증가(‘24.1월) • 입국자 휴대품신고서 폐지, ‘베스트(BEST) 5’ 민생규제혁신 선정(‘23.11월) • 관세청,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‘2등급’ 달성(‘24.1월) • 세계은행 물류경쟁력지수(LPI) 통관분야 평가 ‘18년 23위 → 23년 7위(‘23.6월)
기관 표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업무평가 ‘종합 우수’(‘24.2월) • 디지털 플랫폼 정부 최우수(‘23.11월) •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최우수(2년연속) • 2023 적극행정 우수(‘23.11월) • 매일경제 올해의 정책상(‘23.12월) • 자체 감사활동 성과 우수(‘23.12월)

② [주요성과]

1. 위해물품 반입 차단

○ [마약]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사전 차단



2. 무역범죄 근절·무역안보 확보

- [무역경제범죄] 자금세탁·재산도피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점단속
 ※ 자금세탁 1,430억원, 694%↑ / 재산도피 88억원, 7%↑ /, 증권시장 범죄 514억원, 43배↑
- [기술보호] 관세청 최초 첨단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·사전 차단
 ※ (사례) 강판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, 수출 시도 적발 → 약 6,600억원 피해예방
- [공급망] 무역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(C-EWS) 운영
 ※ (수입) 주요핵심품목 등 333개 품목 (수출) 중국 고의존 품목 등 450개 품목

3. 기업지원 강화

- [수출규제 혁신] 보세제도 규제혁파를 통한 수출지원 총력
 - ※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신고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"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"를 신설하는 등 비용절감 569억원
- [납세협력]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확대
 - ※ 납세신고 도움정보 (456개사, 294억원), 수출입안전관리공인우수업체(176개사, 2,285억원), 특수가격사전심사(49개사, 992억원), 세정지원(29,558개사)
- [통관애로] ①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(베트남·인도) 구축, ②품목 분류 분쟁 해소 등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
 - ※ ① 물류비용 절감(한-베트남 136억원, 한-인도 349억원), 통관소요시간 단축 (3일 → 즉시)
 - ② A기업 등 품목분류 분쟁(아국0% vs B국20%), 관세 수천억원 규모
→ 세계관세기구(WCO) 품목분류위원회 우리측 의견 수용

4. 국민편의 제고 및 민생안정 지원

- [여행자]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, 모바일 세관신고 신설
 - ※ 윤석열 정부 1년 주요 현장 변화 사례(23.5), 국조실 민생 규제혁신 베스트(BEST) 5 선정(23.10.)
- [해외직구] 모바일 ①관세납부·②환급 시스템 구축
 - ※ ① 개인 해외직구 과세건수: 연간 약 300만건 / ② 반품 환급신청건수: 연간 약 2만건
- [데이터 개방] 「무역 마이데이터(My Trade Data) 플랫폼」 구축
 - ※ 서비스 개통(23.6) 이후, 1만 1천여개 국민·기업이 서비스 이용 중
- ⇒ 「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(행안부)」 2년 연속 '우수 기관' 선정
- [물가안정 지원] 수입가격공개(86개 품목), 급등 점검(831개 품목)

5. K-관세행정 모델 확산

- [KCW*] 관세분야 최대 글로벌 협력회의(관세분야 다보스 포럼) 개최
 - *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(Korea Customs Week, '23.4.25.~28.), 78개국, 650여명 참석
 - ※ (핵심성과)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입증지침 시행 → 운송비 연 720억↓
- [유니패스] 유니패스 운영 전담 공공기관 설립·해외수출 확대
 - ※ 관세법 제327조의2(한국관세정보원 설립) / 탄자니아 4,900만불 신규 수출

II.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 추진 여건

① 마약·공급망 위기 등 사회안전 위협요소 증대

- [마약류 확산] 우리 국민 중 마약사범 역대최다* · 연령하향** 뚜렷
 - * [국내 마약사범, 2022 마약류 범죄백서] ('18) 12,613명 → ('22) 18,395명(45.8% ↑)
 - ** 전체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10,988명(전체의 59.7%)
- [경제안보] 기술유출*, 공급망 취약 품목** 등 무역안보 위협 증가
 - * [국정원] 2018~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 피해액은 25조원 규모 추산
 - ** 최근 요소·흑연 등 대중국 고의존 품목에 대한 수출지연·통제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확대

②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요구

- [성장] 글로벌 저성장 기조*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**
 - * '2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) : 국제통화기금(IMF) 2.9%, 경제협력기구(OECD) 2.7%, 세계은행(WB) 2.4%
 - ** 6대첨단산업(디스플레이·바이오반도체·이차전지·미래차·로봇) 수출점유율 : 8.4% ('18, 2위) → 6.5% ('22, 5위)
- [수출] '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△7.4% 감소하였으나, '24년 수출 여건은 세계 교역·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전망
 - 무역수지는 '23.1월 이후 개선 추세, 6~12월 연속 흑자

③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 선도 필요

- [국제연대] 케이(K)-관세행정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해외 관세당국의 수요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적극 지원*할 필요
 - * ['24년, 공적개발원조(ODA) 예산] 정부 : 6.8조원(전년비 2조원 ↑) / 관세청 : 109억원(전년비 29억원 ↑)

◆ '24년을 관세청 신비전(혁신하는 관세청,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) 달성의 원년으로 삼아,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끊임없는 스마트혁신(규제혁신+디지털 혁신) 추진

⇒ ①사회안전, ②국가 번영, ③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설정

2

업무 추진 방향

비전

혁신하는 관세청 도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

관세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으로
사회의 안전, 국가의 번영,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한다.

3대 목표

5대 핵심과제

사회 안전

1.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

- 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지원
- ②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
- ③ 국경단계 부처간 협업 강화
- ④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

2. 경제안보 · 공정무역질서 확립

- ⑤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
- ⑥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
- ⑦ 국내기업 케이(K)-브랜드 경쟁력 보호

국가 번영

3.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

- ⑧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
- ⑨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
- ⑩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

4. 국민 · 납세자 편의 제고

- ⑪ 대국민 서비스 강화
- ⑫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
- ⑬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

글로벌 무역
스탠다드 선도

5.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

- ⑭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
- ⑮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친환경 관세청(Green Customs) 추진
- ⑯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

추진기반

<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가속화 >

- ① 규제혁신 ② 디지털혁신 ③ 조직문화 개선

Ⅲ. 핵심 추진과제

※ 밑줄 : 민생안정·국민체감 과제

1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

◇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, 정보분석 강화, 첨단장비 도입, 유관기관 공조 확대 등 촘촘한 단속망 구축

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지원

- [**컨트롤타워**] 「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(23.10)*」을 중심으로 단속 성과 점검, 취약분야 특별대책 마련 등 사각지대 발굴·해소
* (단장) 차장, (구성) 본청 6개과, 전국세관 102개과 마약담당 직원
- [**국제공조**] 마약 우범국(아세안 10개국 등)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*을 확대하고, 태국·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 파견
* '23 추진국가(태국·베트남·네덜란드)와 합동단속 정례화, 아세안·독일 등 합동단속 추진
- [**여행자**]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·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축*, 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 확대**
* 밀리미터파 검색기 전국 공항·항만 16대, 열화상카메라 2대 / ** 검사율 2배 이상 상향
- [**역량강화지원**] 국가탐지견센터*(가칭), 엑스레이(X-ray)보안판독센터(가칭)** 기반마련을 통해 범국가기관 대상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 지원
* (중·장기) 현 탐지견훈련센터를 확대하여 탐지견 양성 후 수요기관 제공(해경·육군 기 협의중)
** 관세청 시설내 자체 엑스레이(X-ray) 데이터·교육장비를 활용한 부처·공공기관 대상 교육 제공

②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

- [**명의도용**]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부호검증*·명의대여행위 처벌** 강화, 해외직구 시 간편본인인증 절차 도입
* (현행) 부호+성명or전화번호 → (개선) 부호+성명+전화번호 모두 일치 시 통관 가능
** 관세법 제275조의3 명의대여죄 적용범위에 수출입신고·목록통관제출 추가
- [**정보분석**]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(쿠팡, 11번가 등)으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와 수입신고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* 선별시스템 구축
* 주문 사이트·상품정보 등 주요 거래정보 비교,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여부, 저가신고 여부 등
- [**국제우편**] 국제우편으로 수입신고없이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 등에 대해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* 적용
* (현행 : 부과지) 수입자의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
(개선 : 신고납부) 수입자가 수입물품 정보를 세관장에 신고

3 국경단계 부처간 협업 강화

- [**데이터연계**]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*를 통합한 ‘수출입위험 통합 DB’ 구축
 - * (식약처) 유해식의약품, (환경부) 유해화학물질, (고용부) 석면함유, (원안위) 방사성 등
- [**인력교류**] 국경관리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*를 현행 협업수입검사·합동특별단속에서 향후 정보분석·검사대상선별 영역까지 확대
 - * 각 부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정보분석, 선별기준 고도화, 적발정보 공유 등에 활용
- [**교육강화**] 검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(총포도검 등)에 대한 통관검사 매뉴얼을 제작하고, 전문가* 초청 교육실시
 - * (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) 모의총포, (관할 지방경찰청) 도검류 등
- [**국제협력**] 국제기구·해외 수사기관 등 신종범죄 동향정보 입수 채널 확대, 공통이슈* 발굴을 통한 합동단속 추진
 - * 담배(호주·베트남), 중고차(러시아·우즈벡), 멸종위기동식물보호협약(아프리카), 금제품(홍콩·일본) 등

4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

- [**우범선별**] 인공지능(AI)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*하고,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의 적중률 향상
 - * AI 개발 경과 : (‘18~’22) 일반수입화물 → (’23) 여행자물품 → (’24) 특송화물
- [**R&D**] Customs Lab 1.0* 성과 상용화·후속연구** 과제 개발
 - * (기간/규모) ’21 ~ ’24년(4년) / 총 330억원 내외
(과제) 우범여행자 추적 CCTV, 방사선 3D 탐지 장비, 컨테이너 탐사 로봇 등 7개 과제
(성과) 특허출원 30건, 논문발표 215건, SW저작권 등록 8건(’23년말 기준)
 - **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우범여행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CCTV 도입 등
- [**X-Ray판독**] ①우범여행자 정보와 당사자의 기탁화물 엑스레이(X-ray) 영상을 동시에 분석, ②특송화물 엑스레이(X-ray) 판독에 따른 의심물품 은닉위치를 물품검사자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
- [**기술교류**] 경찰청과 마약탐지장비(라만분광기·간이검사패치 등) 공동

개발,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민간·부처간 R&D협력 강화

2 경제안보 · 공정무역질서 확립

◇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, 외환 · 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케이(K)-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

5 경제안보 위협 대응역량 강화

- [**경제안보**] 기술침해물품 · 영업비밀 ·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 확대*, 유관기관(법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) 정보교류 · 경제방첩 활동** 강화
 - * 전략물자 불법 기술이전 단속, 기술유출 업체 기획 외환검사 / ** 외부세력 국익침해행위 수사
- [**공급망**] 무역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(C-EWS)을 고도화*하고, 충격발생 시 대체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**
 - * ①핵심 수출 품목(완성품)과 수입 원자재 연관관계 분석, ②산업군 내 품목 간 상관관계 분석
 - ** 공급망 기본법 시행 예정(23.12.8. 본회의 통과,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), 산업부기재부 등 대상

6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

- [**관세조사합리화**]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* 및 정보분석 강화, 고가신고 · 재산도피 등 조사분야 발굴
 - * (현행) 수입규모 기준 관리 → (개선) 수입규모 기준 완화 + 매출규모에 따라 조사강도 차등
- [**불법외환**]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, 기업의 외환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검사체계 개편*
 - * ①자율점검표 활용 서면검사 활성화, ②위법행위 적발과 외환 건전성까지 확대 점검
- [**가상자산**] 가상자산 악용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 ①정보협의체 구축, ②가상자산 추적 · 분석 프로그램 도입, 분석 전문가 양성
 - ① 가상자산거래소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정보 등 공유를 위한 회의체 신설
 - ② 가상자산 거래와 연결된 거래과정, 가상자산 종류수량, 거래일시, 지갑주소 확인 등 분석 가능

7 국내기업 케이(K)-브랜드 경쟁력 보호

- [**부정조달**] 조달계약자료(조달청)와 수입통관자료(관세청)를 연계 분석하여 국산둔갑 부정납품행위* 모니터링 확대 · 단속 강화
 - * [주요유형] ①저가 외산물품 직접수입 ②허위사업자 이용 우회수입 ③국내 매입 후 국산둔갑 납품
- [**외국산 단순조립**] 외국산부품 단순조립 물품을 국산*으로 불법 판매하여 국내제조기반을 잠식하는 행위 기획단속
 - * "국산원가 비중 85% 이상" 또는 "국산원가 비중 51% 이상 +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(HS) 6단위 변화" 시 국산 인정

3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

◇ 경제활동 자유 및 기업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보세제도 규제혁신 · 비관세장벽 해소,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지원

8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

- [**석유블렌딩**] 해외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*하여 글로벌 블렌딩 물량 국내 유치
 - * (기존) 국산 석유제품 해외 직수출만 가능 → (개선) 종합보세구역에 반입, 블렌딩 후 수출 가능
- [**첨단산업**] 첨단산업 생산흐름*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 구축, 중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지원 확대
 - * 공장 건설(보세건설장) → 원재료 수입(보세운송) → 완제품 제조(보세공장) → 제품 수출보관(보세창고)

9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

- [**상호인정약정**]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(AEO MRA*)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 공급망 완성
 - * 상호인정약정(AEO MRA,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) 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·검사생략 등 혜택 제공(우리나라는 미·중 등 23개국과 체결)
- [**통관분쟁**] 주요 통관분쟁국*과 관세협력을 강화하고, 세계관세기구(WCO) 등 국제기구 분쟁 해소 절차도 적극 활용**
 - * 최근 5년간 통관분쟁 접수 건 인도(29%) → 베트남(23%) → 중국(17%) 순
 - ** 최근 A국과 품목분류 분쟁시 관세관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WCO, 외국 관세당국에 아국 의견 설득 → 세계관세기구(WCO) 품목분류(HS) 위원회에서 아국에 유리한 결과 도출(우리기업 수천 억원 규모 추징위험 예방)

10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

- [**납세신고**] 수입 시 마다 관세신고·납부하는 방식*을 개선하여 성실기업에 한해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·납부하도록 허용**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
 - * 1978년에 관세신고·납부 체제 최초 도입 이후 45년간 변경 없이 현행 유지
 - **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 대해 월별신고를 허용하는 관세법 개정 건의
- [**수출환급**] 환급액 산정 기준을 「수출금액」 외에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「납품한 금액」으로 확대*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 편의 제고
 - * (현행) 수출자가 최종 수출금액을 납품업체(제조자)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 환급불가

4 국민·납세자 편의 제고

◇ 관세행정 주요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·해외직구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 강화, 소액 납세·출입국 편의 제고

11 대국민 서비스 강화

- [해외직구]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(224억원), 원스톱 대민서비스* 포털·앱 개발
* 통관정보 조회, 실시간 민원상담·피해신고센터 마련, 세금조회·납부, 통계 조회 등
- [전담기구] 납세자보호·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 신설*, 민간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
* (현행) 납세자보호(법무담당관) / 고객지원(고객지원센터) → (개선) 납세자보호+고객지원(납세자보호팀)
- [민원상담] 단기 전문상담인력 확충, 중장기 상담내역 데이터 축적* 및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혁신 추진
* ①음성을 텍스트로 저장(Speech to Text) → ②상담정보 생성·축적 → ③고객상담에 활용

12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

- [전자납부] 해외직구·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*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**
* 200만원 이하 // ** 관세령 §32의5④에 따른 위임 규정(고시) 신설
- [납세증명서] 정부24·민간 앱 등을 통해 관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는 「관세 납세증명서*」 발급 서비스 제공
* 계약대금 수령 (정부 → 민간), 내국인 해외 이주신고 등 납세관련 증빙 시 활용

13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

- [면세한도조정] ①향수 면세한도 확대*(60ml → 100ml), ②주류 면세한도 (현재 2병 + 2L + 400달러 이하) 합리적 조정(확대) 추진
* 1979년 60ml로 지정된 이후 최초 변경('24.1.1 시행)
- [환급(Tax Refund)]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진작과 편의 제고를 위해 ①즉시환급 확대, ②세관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개시
① 1회 거래가격 50만원 미만 총액 250만원 이하 → 1회 거래가격 100만원 미만 총액 500만원 이하
② 세관방문·무인기기 → 모바일로 반출확인 신청

5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

◇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,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 확대

14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

- [**자유무역협정2.0**] 자유무역협정 이행 20년 경험*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교환 국제표준 마련,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등 추진
 - * '04년 최초 한-칠레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 이후 20년 경과
- [**에이펙(APEC)**] '25년 에이펙(APEC) 통관절차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무역 원활화 방안 논의를 주도*하고 유니패스 등 케이(K)-관세행정 적극 홍보
 - * (주요의제) ①해상특송센터 모델, ②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(FTA-PASS, 유니패스, EODES)

15 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위한 그린 커스텀즈(Green Customs) 추진

- [**유럽연합(EU)규제대응**] 유럽연합(EU)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규제를 적용받는 수출기업과 품목을 분석하여 기업·품목별 규제 대응 지원*
 - *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활용, 국내 수출산업 대상 탄소세 이행 컨설팅 실시
- [**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**] 폐기물·재활용품 사용으로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리·업사이클링 제품*에 대한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지원
 - * (예)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→ 에너지저장장치, 휴대용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 가능

16 국제연대에 기반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

- [**아프리카**] 한-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('24.6/서울) 계기 아프리카대륙 국가와의 관세행정분야 협력사업* 발굴·고위급 세미나 개최
 - *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(AfCFTA) 초기 정착을 위한 우리 청 제도·시스템 전수, 직원연수, 첨단장비 도입 등
- [**중동2.0**] 중동지역 첫 자유무역협정인 아랍에미레이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UAE CEPA*), 걸프협력이사회(GCC) 자유무역협정** 타결 계기 자유무역협정 이행협력창구 마련, 한-카타르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
 - * 아랍에미레이트('23.10월), // ** 걸프협력이사회('23.12월): 사우디, UAE, 오만, 바레인, 쿠웨이트, 카타르
- [**공적개발원조(ODA) 확대**]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등 국내 유관기관, 해외 국제기구(IDB, ADB 등) 사업과 연계하여 공적개발원조(ODA) 확대·다각화 추진*을 통해 선진국가 책임 이행
 - * 국가·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, 현지 관세행정 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 세관현대화 지원

추진기반

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

◇ 경제자유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·개선 및 규제정보 공개 확대, 필요한 규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하여 부담 최소화

① **규제혁신**

- [**규제·서비스 개혁**] 내·외부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*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
 - * ①기업·국민과 직접 관련된 과제 ②다수 행정수요자가 관련된 과제 ③파급효과가 큰 과제
- [**행정규칙 정비**] 변화하는 행정 환경 또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* 폐지·개정
 - * (추진대상) 우리청 소관 행정규칙 1,591개(고시 97개, 훈령 113개, 지시·지침 1,333개 등)
- [**정보 접근성 확대**] 국민들이 법령·판례·행정결정 등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법령·규제정보 접근성 제고
 - * 판례·결정례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비식별처리방안 수립 등

② **디지털혁신(ABC)**

- [**인공지능(AI)**] 저위험화물 대상 인공지능(AI)전자통관* 확대, 생성형인공지능(AI) 기반 품목분류 추천모델 구축**·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인공지능 적용 확대
 - * 인공지능(AI)이 수입신고서를 심사하여 위험이 탐지되는 경우에 서류심사·현장검사로 전환
 - ** 기존 검색 방식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(AI) 활용
- [**빅데이터(BigData)**] 무역마이데이터 서비스* 등 확대를 통해 무역데이터가 무역금융·물류컨설팅 등 민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
 - * 무역기업이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은행·공공기관·물류컨설팅 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
- [**편리(Convenience)**] 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, 단순·반복업무 자동화*를 통해 국민과 세관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관세행정 구축
 - * (예) 등기우편 발송 등 수작업으로 하는 사전 안내업무를 시스템으로 자동 발송

③ **조직문화 개선**

- [**인재양성**] 업무과정에서 신기술·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인재* 육성
 - * (인재원) 신규과정 40명/년, 연계과정 300명/년 // (미래인재) 신규 15명/심화 20명
- [**조직문화**] 직렬 간 인사 칸막이 제거*, 스마트혁신 필요성·성공 사례 공유와 현장의견 수렴 상시화로 스마트혁신 조직문화 정착
 - * 과학기술직(공업·해수·전산·방송통신) 5급의 보직범위를 세관 모든 부서로 확대